

# 책과 디자인

鄭丙圭 '정디자인' 대표·본지 편집위원

우리는 흔히 한권의 책을 살 때, 마치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소유하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 읽거나 보지 않더라도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누구나의 경험일 것이다. 이제는 내 곁에 있으니까, 언젠가 도 나는 저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또 책을 살 때 우리는 책에 대한 짐작만을 가지고 흔히 구매를 한다. 즉 어떠한 내용일 것이라는 짐작, 한 권의 책이 지니고 있는 세상의 기미만을 가지고 우리는 책에게로

다가갈 뿐이 아닌가. 비유하자면 설렁탕은 설렁탕이라는 맛을 이미 알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책이란 지은이, 제목, 출판사 등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실린 내용을 짐작,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광고는 이러한 책의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행위일 것이다. 우리는 책에 다가갈 때 책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구체적인 책의 이미지는 책이 가진 꼴로부터 나온다. 책의 꼴이란 책이 가진 내용의 구체적인

형상화과정의 결과이다. 저자, 출판사의 생각은 물론 당대 사회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책의 꼴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인간이 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 존재한다면, 책의 꼴은 책의 육체인 셈이리라. 그러나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책에서도 꼴과 내용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제 책 만들기에 있어서 상식화되어야 할 것이다.

책의 꼴을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는 책을 디자인한다고 부르고 있다. 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책을 장식한다는 것과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가 정신의

장식이 아닌 것처럼, 책의 디자인은 단순히 책의 장식만이 아니라는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책을 존재시키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몇벌의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책 만들기에 있어서도 이제는 디자인을 장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황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책과 디자인 관계의 인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질 때 우리의 책들도 개성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와 이미지로 독자를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 30호/1988년 11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이기용  
인쇄인—이일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차장—강철주  
기자—오애리 남진우 김지현  
디자인—윤정자 이은주

포토디렉터—주명덕  
사진—전혜경

업무·광고—양승표 최태원  
김윤희 홍선기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식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3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慎鍾煥 安秉永  
安輝潯 吳光陸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元植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본지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들의 정답을 12월 15일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3호(11월 5일자 신년호)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이머 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문제 1

황현(黃玑, 1855~1910)은 조선 왕조 후기의 시인이며 학자요 지식로서 경술년(庚戌年)에 나라가 망하자 분개하여 자결한 분이다. 그는 관직에 오르기를 마다하고 더구나 정부의 부패한 꼴을 보고 은둔하기로 결심한 뒤, 거실의 이름을 '구안(苟安)'이라 짓고 자그마치 책 3천권을 거실에 둘러쌓고 그 안에서 독서하며 지낸 분이기도 하다. 그가 쓴 저명한 한말의 야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1. 梅泉野錄
- 2. 梅月堂集
- 3. 梅花讀曲

### 문제 2

책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종이의 시초는 '파피루스(Papyrus)'라는 식물에서 만들게 되었다. 지금부터 약 4,5천년 전의 일인데, 오늘의 영어의 '페이퍼(paper)'라는 말의 모체가 파피루스이기도 하다. 이 파피루스는 다음 중 어떤 강변에서 그 당시 야생하던 갈대를 닮은 식물인가?

- 1. 인더스
- 2. 아마존
- 3. 나일강

### 문제 3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는 1320년에 책을 쇠사슬로 묶어서 한권 한권의 책을 각기 독서대(讀書台) 위에다 놓아두고 열람케 했다. 물론 이 책은 대형인데다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羊皮紙)에다 손수 필사한 내용의 귀중한 책이었다. 그러자 이듬해인 1321년에는 파리의 솔본느대학 도서관에서도 역시 책에다 쇠사슬을 꿰어 독서대에 얹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1. 책의 도난 방지
- 2. 책이 돌아다니는 것 방지
- 3. 책의 권위 존중

### 문제 4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812~1870)가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쓸 때의 일화가 있다. 디킨즈는 칼라일(Thomas Carlyle, 1791~1881)에게 소설에 쓸 "참고서를 빌리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러자 곧 칼라일은 책을 산더미처럼 실은 짐수레 두대를 디킨즈에게 보내주었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의 두 도시란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를 말하는가?

- 1. 파리와 모스크바
- 2. 런던과 파리
- 3. 런던과 보스턴

—출제·홍윤기

### 제29호 독서퍼즐 정답

「독서퍼즐」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호(10월 20일자) 퍼즐에 응답해 온 엽서는 총 126통, 이중 정답은 94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 1. 이름찾기

- 토마스 만
- 알베르 까뮈
- 찰스 디킨스
- 윌리엄 포크너
- 앙드레 지드
- 토마스 하디
- 에른스트 헤밍웨이
- 헤르만 헤세
- 제임스 조이스
- 프란츠 카프카
- 애드거 알렌포우
- 장 폴 사르트르
- 버지니아 울프
- 에밀리 브론테
- 오스카 와일드
- 구스타프 플로베르
- 알퐁스 도데
- 안톤 체홉
- 마르셀 프루스트
- 이반 투르게네프

### 2. 글자 짜맞추기

	로스	할	데						
유	리	알	유희						
나	르	시	스	와	골	드	문	트	
수	레	바	퀴	밀	에	서			
		청	춘	은	아	름	다	워	라
		페	터	카	멘	친	트		
게	르	트	루	트	릿	달	타		
		데	미	안	크	눌	프		

### 당첨자

- 문명주(경남 밀양군 밀양읍 교동리 1구 874-9/김덕영씨택)
- 이완규(경북 안동시 송현동 안동공고)
- 홍지태(충남 온양시 모종동 554-3 제일연립 나동 103호)
- 한미숙(서울 양천구 목1동 목동 APT 532동 1402호)
- 안경숙(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569)